

[사회]

순수한 이웃돕기나... 단속 बद달라 '성의표시'냐

노점상들의 성금 '논란'

광주 서구청·경찰, 대가성 여부 조사 착수

생활이 어려운 노점상들이 200만원을 걷어 이 중 70만원을 관할 구청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것을 둘러싸고 '순수한 성금이나, '단속 완화를 노린 대가성이나'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서구 금호2동 노점상 변영희는 저소득층과 기탁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인 '행복 서구 나눔운동'에 지난 2일 70만원을 냈다. 또 독거노인 김모(여·73)씨 등 저소득층 17가구에 3만~10만원씩 모두 70만원을 3개월간 지원키로 구청과 약속했다.

금호2동 동사무소 주변 인도 50여m에서 가방·야채·분식·과일 등을 파는 70여 명의 노점상은 최근 변영희를 조직했으며, 성금은 반대하는 상인들을 제외한 38명이 5

천원~3만원 가량 각출했다.

변영희는 당초 관할인 금호2동 동사무소에 성금을 내려고 했지만 관계자들이 받지 않아 금호1동 동사무소를 통해 기탁했다. 금호2동 측은 "단속 대상인 노점상들에게 관할 동사무소가 성금을 받을 수 없다"며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노점상들의 성금 기탁 배경에는 그동안 단속을 눈감아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서구청이 제89회 광주 전국체전을 앞두고 지난 6월25일부터 공무원·청원경찰·공익요원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펼쳤지만 이곳에서는 단 한 건의 적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서구청은 다른 지역의 경우 1천909건의 노점상을 적발해

손수레 등 1천558개의 노점 물품을 압수하고, 36건에 대해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금호2동 노점상들은 단속이나 광주시의 현장 시찰이 있는 날엔 구청과 사전협의의를 거쳐 잠시 영업을 중단하고, 단속이 끝난 후엔 다시 좌판을 벌이고 있다는 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구청 측은 28일 노점을 단속하는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고 단속 여부를 미리 알려줬는지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서부경찰도 이날 노점상을 불러 변영희 회계장부를 토대로 대가성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변영희 관계자는 "성금으로 기탁한 70만원 외 나머지 130만원은 통장에 남아있다"며 "대가성 등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인원주기자 ahj@kwangju.co.kr

천동·번개 동반 최고 80mm 비

광주·전남지역에 29일 강풍과 천동·번개를 동반한 최고 80mm의 비가 내리면서 '짙통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은 29일 천동·번개와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30~80mm다.

기상청은 또 "물풍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사리 기간이므로 해안 저지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내리면서

천둥소리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

8월 29일
(음 7월 17일)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 비	23~28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4~29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4~27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4~28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3~28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4~28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4~28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2~28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2~28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3~28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4~28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3~28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2~28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3~28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2~28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3~28
주요 어안 구해	흐리고 비	22~28

서울	23~28
대전	24~29
부산	24~27
대구	24~28
인천	23~28
충청	24~28
강원	22~28
경남	23~28
제주	22~28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남해동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2:38 썰물 < 07:59
목포 밀물 < 14:45 썰물 < 20:08
여수 밀물 < 09:38 썰물 < 03:31 22:02

▲해돋이 06:02 ▲해질 19:04 ▲달돋 19:32 ▲달짐 06:3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0(목)	31(금)	9/1(토)	2(일)	3(월)	4(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24/28	23/30	23/31	22/28	23/28	22/29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과정에 등록한 수강생들이 28일 지친한 표정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대 MBA 과정 57명 등록

회사원·공무원·의사 등 다양

전국 지방대 최초

국내 지방대 최초로 문을 연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경영학석사) 과정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록했을까?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은 지난 27일 글로벌 수준의 기업맞춤형 경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최신 경영이론'과 '실무지식'을 접목한 4학기(2년) MBA 과정을 시작했다.

수강생은 57명으로 직장인 51명과 경영학 전공자 6명이다. 직종별로는 회사원이 전체의 52.6%인 30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6)·금융기관(6)·의사(2)·자유업자(2)·교육계(2)·연구원(1)·군인(1) 순이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2명도 등록, 눈길을 끌었다.

MBA 문을 두드린 목적은 폭넓은 전문 지식 습득, 친분 교류,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

한 것 등 다양하다. 국내·외 현장을 다니며 경험을 쌓아 경쟁력을 키우고, 외국 경영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변신을 꾀하려는 이들도 많았다. 기존 전공분야와 무관한 업무를 맡았던 직장인이 전공을 살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찾는 경우도 있었다.

첫날 수업을 마친 박진성 광주과학기술원 지역혁신센터 사무국장은 "해의 기업을 광주에 유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기업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론지식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창복(주)KT 전남본부 사업협력부 과장은 "그동안 마케팅 관련 업무를 봤는데, 이론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MBA 과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재정·회계 등 다양한 업무 지식을 쌓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전남 병원 31일 오후 집단 휴진

광주·전남 병의원들이 정부의 '성분명(成分名)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반발, 오는 31일 오후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28일 광주·전남의사회(의협)에 따르면 광주지역 700여 개 병의원을 비롯된 광주·전남지역 개인의 4천여 명이 31일 오후 2시~6시까지 집단 휴진하고, 전국 시·군·구의 의사회 비상 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를 철저한 준비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료정책은 환자 피해만 초래할 것임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전남 의협은 31일 오후 휴진에 이어 각 군·구별로 대책회의를 갖고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에는 이에 반대하는 의미로 지역별로 휴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 소속 회원은 각각 2천500여 명, 1천700여 명이다.

▲성분명 처방=의사가 특정 제약사의 약품(상품명)을 처방하는 대신 약의 주성분 이름(성분명)을 처방, 약사가 약을 골라주는 제도. 대상은 일차의약품 11개·전문약품 9개 등 20개 성분 32개 품목이다.

'학위 공장' 박사 10여명 교수로 재직중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8일 퍼시픽웨스턴대 등 해외 비인종 대학 출신 박사 중 10여 명이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입 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이들은 대부분 지방 사립대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4년부터 올해까지 경찰에 적발된 학위 위조사범은 168명으로 이중 110명이 국내 대학 학사취취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 위조 유형은 국내 학사가 110명(65%)으로 가장 많고 외국 박사 50명, 외국 학사 7명, 국내 박사 1명 등이다.

국내 학사 위조 대상이 된 대학은 한양대 9명, 성균관대 8명, 연세대 6명, 고려대와 경복대 각 5명, 서울대와 경희대 각 4명, 이화여대 3명 등으로 파악됐다.

학위 위조 사유는 취업용이 81명(48.2%)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수능 원서접수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접수 첫날인 28일 광주시 교육청에 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는 11월15일 실시되는 수능의 원서접수 기간은 9월 12일(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페트병 수돗물 무료 공급

광주시, 동북호 물 원수 사용

광주시가 동북호원지 물로 자체 생산한 페트병 수돗물을 다음달부터 무상 공급한다. 브랜드 이름은 '빛여울수'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 "페트병 수돗물 공급을 위해 5억5천여만원을 들여 동구 용연정수사업소에 자동 생산시설을 완비했으며 다음달부터 본격 생산한다"고 밝혔다. 350ml와 1천800ml 등 종류로, 시간당 4천800병·연간 20만 병을 생산하게 된다.

페트병 수돗물은 단수나 재해지역 비상급수용으로 쓰이거나, 전국체전·비엔날레 각종 주요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무료 제공된다. /김주정기자 jnews@

"국민이 국민이되는 살맛나는 담양"

담양군·전남농협

담양군·전남농협